

더 좋은, 더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

2021년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지금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만연했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의 우리는 남아 선호 사상이 줄어들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났으며, 남녀 교육 수준도 비슷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누군가는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반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심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일까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은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을 외면한다면 여성은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분야에서 남녀 차별이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 중의 하나가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남녀 임금 차이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4.6%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4,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13.8%인 것을 감안하면 꽤나 큰 차이입니다. 직급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직급 내에서도 남성의 임금이 더 높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도, 경력이 쌓여도, 승진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남녀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화 「주토피아」는 2016년 역주행 신화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호평을 받은 이유는 영화에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주토피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회 내에는 ‘갑과 을’, 그 뒤를 잇는 ‘병과 정’의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특성이 많을수록 권력 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시장직은 육식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수컷 사자가 차지했습니다. 경찰 서장직은 초식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수컷 물소가 맡았습니다.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여성은 기회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라는 제목으로 OECD 국가별 유리 천장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 경제 활동 참여, 임금, 보육 비용, 육아 휴직, 경영대 입학, 회사 내 임원, 의회 참여에 대한 남녀 비율을 반영한 점수입니다. 2018년 한국은 29개 국가 중 29위로 6년째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각각 1~3위에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는 겨우 20점을 넘겼습니다. OECD 평균은 약 60점이었습니다. 여러 항목 중 우리나라가 유독 뒤쳐진 부분은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이사회 비율입니다. 세 항목 모두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2%, 여성 임원은 10%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그만큼 큰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어떤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녀 노동자 402명, 인사 담당자 112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유리 천장 지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남성 중심적 회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입니다. 회사의 핵심 부서에 주로 남성을 배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며, 육아 휴직을 주지 않거나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초반 노르웨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한 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94%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성원 10명 중 4명이 여성입니다. 2003년 통과된 여성 임원 할당제 덕분입니다. 공기업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사진을 조직할 때 성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여성 비율이 40%가 넘지 않는다면 회사는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엄격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 평등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 혹시 기억 하시나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사건보다 유독 남녀 간의 온도 차가 컸습니다. 여성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남녀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폭행, 강도, 절도,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느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남성은 10명 중 1~2명이라면, 여성은 5~8명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피해를 보는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자 중 98.7%가 남성이었고, 피해자의 98.4%가 여성이었습니다. 강제 추행은 범죄자의 97.3%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90.6%가 여성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하루에 약 80건, 시간당 3건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느낀 두려움을 터무니 없는 불안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통계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로 보도되는 실제 성범죄 사례와 더불어 범죄 통계 수치로 전해지는 여성들의 이유 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피해 여성들에게 차갑기만 합니다. 특히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여성을 탓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밤늦게 돌아다녀서 화를 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응답한 남성의 10명 중 5명, 여성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이 ‘성희롱 문제를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 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성 평등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트 비용과 장소, 성관계에 관해 함께 상의하고,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목격했다면 당연히 피해자를 돕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며, 범죄 피해에 노출됐어도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가 바뀌어도 여성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1908년 3월 8일, 여성 섬유 노동자 1만 5,000명은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습니다. 열악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동료 여성 노동자가 숨지자 노동 조건 개선, 여성 지위 향상과 참정권 획득을 외치며 뛰쳐나온 것입니다. 빵은 굶주림에서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뜻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여성의 권리는 향상됐을까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여성은 여전히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임금도 남성보다 10~30% 적으며, 여성 국회 의원의 수도 겨우 남성의 22%에 그칩니다.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고정된 성 역할의 편견을 깨고 더 좋은, 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교육자료 출처 : 공유회·윤예림,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창비, 2019.)